

한글, 타자기, 공병우

조형래*

[서평] 김태호(2023), 『한글과 타자기:
한글 기계화의 기술, 미학, 역사』,
역사비평사, 320쪽

1. 연속과 단절: 키보드 시대, 한글 타자의 일상화

누구나 키보드를 타자한다.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간과한 단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프트웨어 키보드를 통한 문자 입력은 대단히 일반적인 인터페이스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알다시피 PC 키보드에서 비롯된 QWERTY 및 한글 두벌식 표준 자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입력기를 모델로 한 천지인 자판 등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테지만 이것 역시 키보드의 일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음성 또는 필기 인식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등장한 지 오래고 그 기술 진보의 속도 역시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촉지(觸指)를 통한 인터페이스 즉 타자의 효율과 생산성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무리 혁신적인 인터페이스가 출현한다고 해도 문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지되는 한 타자가 차지하는 광범위한 사용자 저변과 환경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러한 전망은 더욱 설득력을 얻는다. 앞으로 누구나 키보드를 타자할 것이다.

*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조교수

하지만 한국에서 타자가 보편적인 인터페이스로 정립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한글과 타자기: 한글 기계화의 기술, 미학, 역사』에서 대단히 공들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글 타자기는 한국전쟁 전후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만큼 한글 자판의 연원은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타자기의 자판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병우의 세벌식 타자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한글 자판이 제안되었지만 1969년 정부에서 내놓은 네벌식 표준안에 의해 사장된 바 있었고 1983년 다시금 전산화를 의식한 두벌식 표준 자판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리고 이 두벌식 표준 자판이 현재의 키보드 한글 배열의 직접적인 선조가 되었다. 즉 지금 여기의 우리가 누구나 자판을 익히고 타자하게 되는 데 있어서 실로 간단치 않은 단절과 연속의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글 기계화를 둘러싼 서로 다른 생각들 및 기술적·제도적 조건이 상호 복합적으로 절합(articulation)했던 과정을 보여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타자라는 인터페이스는 PC와 키보드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것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기가 그 정착의 조건을 마련했던 기기로서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수의 엘리트 내지는 여성 사무인력의 전유물처럼 취급되었고 서구나 후일의 PC 시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용자 저변이 협소한 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타자기는 한글 기계화의 총아이자 유용한 사무기기로서 20세기를 풍미했듯이 지금은 명백히 사장된 기계다. 카페의 복고풍 소품이나 몇몇 마니아들이 향유하는 고완품으로 중고상에서 소수가 유통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PC에 비하면 타자기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적을 것이고 타자된 문서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이들도 다수일 터다. 저자가 ‘여는 글-한글 타자기와 나’에서 밝히고 있는 경험과 정확히 동일하게 이 글을 타자하

고 있는 필자 역시 타자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 PC의 키보드를 통해 타자를 접한 세대에 속한다.

물론 글쇠를 연속적으로 눌러 ‘타자’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다. ‘타자’라는 단어 또한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소위 “타자/기를 친다”는 것과 오늘날 일반화되어 있는 키보드의 타자 사이에는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사용자 경험과 감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본래 아날로그 기계에서 비롯되어 문서에만 특화된 타자기와 애초부터 디지털 아키텍처로 구성된 범용 기기로서의 PC 간 차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글쇠를 누를 때마다 종이에 즉각 자모가 찍히는 일과 디스플레이를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글을 쓰는 일에만 국한해도 한 번 타자되면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하는 주의성 대 자유자재로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이라는 양자의 행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행성(performativity)의 감각 역시 상이하다. 문서 대 디지털 데이터라는 결과물 및 그것들이 유통되는 범위와 맥락 역시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오늘날 누구나 키보드를 타자한다는 행위는 전적으로 후자와 관련된 다. 그만큼 타자기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고완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타자기에 관한 신체의 기억은 사실상 거의, 완전히 망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타자기의 발명과 보급, 사용에 관한 역사적 과정을 복원하는 작업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주로 단절의 사례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미 언급했다시피 한글 타자기의 발명과 보급, 사용을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오늘날 누구나 키보드를 타자하게 되는 역사적 기술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전사(前史)로 연속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기존 수기(手記)를 대체하여 타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기계 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에서 수기에서 타자로의 결정적인 전환을 매개했다. 즉 한글 타자기를 통해 한국에서 수기

를 통한 손-필기구-용지(종이)-필적 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해제¹되고 “언어는 “타이핑한 것””(하이데거)²으로서의 가능성이 전면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타자기를 중심으로 한글 기계화를 둘러싼 다양한 실험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거나 발명한다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글과 타자기』가 논의하고 있는 바처럼 타자기를 중심으로 한글의 자모를 어떻게 기계적으로 조합하고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한글의 기계화 내지는 타자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상이한 생각들이 교차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군분투한 이들이 여럿이었으나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양한 제도적 계기가 개입했으며 예기치 않은 결과와 영향을 초래했다. 이 점에서 타자기는 오늘날 키보드로 대표되는 한글 기계화를 둘러싼 문자사용 환경과 그 맥락에 있어서 망각된 기원을 결정적으로 환기하는 사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글과 타자기』는 타자기를 중심으로 한글 기계화의 간단치 않았던 역사적 과정과 경위를 상세하게 규명하는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면서도, 대단히 친절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미덕을 갖고 있다.

2. 한글, 타자기, 공병우

『한글과 타자기』는 한국에서 타자기를 통한 한글 기계화의 역사를 면밀히 탐구한 흥미로운 저작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타자기가 발명되고 보급

1 프리드리히 키틀러(2019), 유현주·김남시 역,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pp. 357-359.

2 마르틴 하이데거(2019), 「손과 타자기에 대하여」, 프리드리히 키틀러, 유현주·김남시 역,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p. 358에서 재인용.

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상세히 고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공병우 박사의 삶을 비롯하여 한글과 타자기를 둘러싼 기술적·제도적 맥락을 생생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물론 『한글과 타자기』는 한글 타자기에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초점은 두 가지에 맞춰져 있다. 제목 그대로 ‘한글’ 그리고 ‘타자기’다.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체계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 즉 한글의 ‘기계화’ 과정이 타자기라는 서구에서 도입된 문자 처리 기술을 매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논의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 이 책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먼저 「1장 타자기라는 도전자 기회」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후자 즉 현대 타자기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명되었고 20세기 전반기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일찍이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 편리와 효율성에 관한 주목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자국어 타자기의 발명이 실험된 적이 있었지만, 한자(漢字)를 상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자 환경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진통과 시행착오가 따랐다고 한다.

한자 병용 및 세로쓰기(右縱書)의 문서 관행을 공유하고 있었던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2장 순탄치만은 않았던 한글 타자기의 탄생」에서 여러 사례가 거론되고 있듯이 식민지 시대에 개발된 초기의 한글 타자기 몇몇은 그러한 전통을 고려하여 가로쓰기 방식으로 작동하되 세로쓰기로 결과물이 인쇄되는 형태로 발명된 바 있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글 전용 및 가로쓰기(左橫書)라는 대안이 부상했다. 한글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음과 모음을 표기하고 조합할 수 있는 표음문자였으므로 한자를 배제하기만 한다면 로마자 타자기 못지않은 속도와 능력을 담보하는 타자기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 과정에서 한글학자 최현배에 의해 한글 풀어쓰기라는 다분히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요컨대 한글 타자기의 개발과 실용화는 한글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는 세간의 통념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글 타자기의 개발은 단순히 로마자 타자기의 자모를 한글의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는 기술적 문제로서만 치부될 수 없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나 기계적 처리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자에 관한 미감을 비롯한 기존 문자사용 관행이나 한글에 관한 사람들의 이상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글 타자기를 개명하고 보급한다는 것은 당대 한국어 사용자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 문자사용 관행의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또한 기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한글 타자기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했던 이가 바로 공병우다. 「3장 타자기에 미친 안과의사 공병우」 전체를 한글 타자기 발명까지의 공병우의 삶을 규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일 것이다. 저자는 김태호는 공병우의 개인사를 꼼꼼히 추적하면서 그의 독특한 성장 배경과 성격, 신념 등이 한글 타자기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생생하게 포착해 내고 있다. 공병우는 유년 시절 월반을 거듭한 영재로 내내 주목받았으며 의사 면허의 획득이나 한국인 최초의 안과 의학박사 학위 취득, 후일의 공안과의 개원 등을 독립(獨力)으로 이뤄낸 범상치 않은 이력의 소유자다. 정규 교육 연구 기관에 의지한 바가 없지 않았으며 박사학위 취득이나 개원의로서의 성공 등 삶의 많은 부분을 자신만의 힘으로 성취해 낸 그가 스스로의 방식에 관한 예사롭지 않은 자긍심과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그의 성격 및 이후의 생애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한글 타자기의 발명과 보급에 진력하게 된 과정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공병우는 개원 후 한글학자 이극로와의 만남을 통해 한글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한다. 광복 이후 자신의 의학 저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수의 필적을 알아보기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한 것을 계기로 한글 타자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것은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1949년 공병우는 영문 타자기를 개조하여 사실상 최초의 실용성 있는 한글 전용 가로쓰기 세벌식 타자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절문자로서의 한글 자체(字體)의 미감(美感)보다 타자의 속도와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세벌식 자판의 우수성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그 자신의 일평생을 지배한 믿음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장 한글 타자기 시장이 열린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전쟁 당시 해군을 위시한 군부에서 공병우 타자기를 대량으로 납품받게 되고 곧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조직 일반에서도 그의 타자기를 채택하는 등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그의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 공병우의 생각에 군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그의 타자기를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기존의 문자 관행에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한 결과였고 그가 개발한 한글 전용-가로쓰기-타자 속도 위주의 세벌식 타자기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였다. 특히 한국전쟁 휴전 협정 조인문이 공병우 타자기로 작성된 것은 결정적이었다. 이후에도 공병우는 세벌식 자판의 우수성을 강력히 주창하며 한글 타자기의 개량과 보급에 진력했다.

한편 공병우에 의해 개척된 타자기 시장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등장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중에서도 1949년 3월 조선발명장려회 주최 한글 타자기 현상 공모에서 공병우에 이어 3위로 입상한 적이 있었던 김동훈이 개발한 다섯벌식 타자기는 글자꼴의 가지런한 미감을 살리는 데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군에 비해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선호되었으며 1950~1960년대에 걸쳐 공병우 타자기와 치열하게 경쟁했다. 한편 타자기와 유사한 메커니즘의 인쇄전신기 시장은 1953년 장봉선이 발명한 두벌식 풀어쓰기 타자기가 선점하고 있었는데 1958년 송계범이 보류식 두벌식 텔레타이프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시도했다. 비록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송계범의 텔레타이프는 전기회로를 활용하여 풀어

쓰기로 입력된 자모를 음절 단위로 조합하여 모아쓰기로 출력한다는, 오늘날 PC의 인터페이스를 연상시키는 방식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의의를 가진다. 1950~1960년대 한글 타자기 시장을 둘러싸고 전개된 공병우, 김동훈 간의 경쟁 및 송계범의 인쇄전신기 발명은 사실상 한글 기계화 및 타자 기술의 발전 방향을 둘러싼 논쟁적 실천의 과정이 되었다. 공병우가 타자 속도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세벌식 자판을 고수했다면 김동훈과 송계범은 상대적으로 글자꼴의 미감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사례는 당대 한글 타자 기술을 둘러싼 논의가 단지 효율성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저자는 한글 기계화의 과정이 단순히 속기와 같은 편의성의 추구를 넘어 한글의 고유한 심미성을 기계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둘러싼 모색의 장이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다.

1950~1960년대 계속된 한글 타자기를 둘러싼 다양한 실험은 그러나 「6장 한글 기계화의 분수령이 된 1969년 자판 표준화」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1969년 정부에 의해 추진된 한글 타자기 자판 표준화 과정을 통해 일거에 종식된다. 즉 과학기술처 주도로 네벌식 표준 자판이 채택되고 1980년대 전산화 시대를 맞아 두벌식 자판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특히 공병우의 세벌식 자판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타 사업자들이나 신생 업체의 경우 대체로 표준 자판을 준용하여 타자기를 생산하는 길을 택했지만 자신의 방식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던 공병우의 경우는 예외였다. 그는 정부의 표준안을 비판하고 재야 한글 단체와 연계하여 세벌식 자판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설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결국 이후 전개된 한글 자판의 표준화 및 전산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우는 한영타자기를 개발하거나 「5장 공병우의 시각장애인 자활운동과 타자기」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바처럼 자신의 전공을 사회사업으로 확장하여 시각장애인을 타자수로 양성, 자활시키고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소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계속해서 대립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탄압에 직면하여 좌절하게 되었으며 중국에는 해외로 축출되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재야인사로 변모하게 되면서 다수의 지지자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공병우와 그의 지지자들은 1969년 그리고 1983년 전산화를 염두에 두고 제정된 두벌식 표준 자판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이어 가면서 세벌식 자판의 우수성에 관한 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담보하는 세벌식 자판이 군사독재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 사장되고 말았다는 서사가 창출되었고 이는 PC가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물론 기존 한글 타자기 자판과의 단절을 전제로 한 두벌식 표준 자판이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송계범의 인쇄 전신기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험되었던, 자음과 모음 두벌만 사용하여 글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이상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 실현시킨 것이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다. 뿐만 아니라 표준 자판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은 다수의 PC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병우의 세벌식 자판을 선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공병우와 그의 지지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세벌식 자판은 시장에서 급격히 도태되었다.

그런데 공병우의 세벌식 자판에 대한 독특한 신념은 1980년대 이후 한글 타이포그래피 영역에서 의외의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7장 공병우 타자기의 유산과 ‘탈네모꼴 글꼴’의 탄생」은 1950~1960년대 글자의 미감이나 위조의 가능성을 놓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공병우 타자기의 글꼴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던 사정과 그 후과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공병우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송현에 의해 네모꼴 글꼴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주장에 공명하는 이들이 젊은 한글 디자이너 중에서 나타났으며 그들은 샘플체를 비롯한 다양한 탈네모꼴 글꼴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세벌식 자판(이나 조합형 한글)의 우수성에 관

한 공병우 및 그의 지지자들의 주장은 PC 통신 사용자들 중 전문적 식견을 갖고 한글 디지털화에 관심을 보였던 이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병우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1989년 개발된 <한글> 워드프로세서는 기존 명조체와 고딕체 외에 샘물체를 글꼴로 제공하고 있었고 세벌식 자판 역시 지원했다. 기존 행정전산망 워드프로세서에 비해 WYSIWYG(What You See Is What You Get)를 지원하는 등 PC 탁상출판에 있어서 전례 없는 기능적 혁신과 편의성을 자랑했던 <한글>은 1990년대를 통틀어 대단한 성공을 거뒀고 워드프로세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확립했다. <한글>이 제공했던 샘물체 역시 기존 명조체 및 고딕체 일색의 글꼴에 식상함을 느꼈던 젊은 사용자층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면서 탈네모꼴 글꼴의 대중화를 촉진했다. 특히 PC 통신 사용자 중 다수를 차지했던 청년층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병우 및 지지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 표준안에 근거한 완성형 한글 인터페이스나 두벌식 자판, 네모꼴 글꼴 등을 한글의 과학적 창제 원리에 반하는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여기며 반감을 갖고 있었고 그 대안으로서 조합형 한글, 세벌식 자판, 탈네모꼴 글꼴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았다. 비록 얼마 지나지 않아 두벌식 한글 자판의 우위가 확립되었고 유니코드(Unicode) 방식의 문자 처리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바람직한 한글 입력 방식을 놓고 벌어진 조합형·완성형 논쟁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었으므로 공병우와 그의 지지자들이 그토록 천착했던 한글 입력 및 처리 방식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세벌식 타자기의 글꼴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여러 탈네모꼴 글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초 타자 속도와 효율성에 집중하면서 글자체의 미감을 부차적인 것으로 돌렸던 공병우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그의 최후의 유산이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아이러니하다 할 만하다.

3. 한글 기계화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선

김태호의 『한글과 타자기』는 해방 이후부터 전산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글 타자기를 중심으로 한 한글 기계화의 역사를 면밀하게 고찰하면서 그 이면에 존재했던 문자 생활의 근본적 변화 양상을 조명하고 있다. 타자기라는 근대적 기술을 매개로 한글이라는 고유한 문자가 새로운 쓰임과 가치를 모색하는 역동적 과정을 입체적으로 포착해 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단순히 타자기라는 특정 기술에 천착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한글과 타자기』에 따르면 한글 타자기 도입 초기의 논의 과정은 문자 입력의 효율성과 한글 고유의 미감 사이의 긴장, 기술 발전과 기존 관행의 마찰, 표준화의 필요성과 다양성 추구 사이의 갈등 등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장이었다. 이 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기존의 문화적 관행 및 개인의 경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변화를 촉발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뿐만 아니라 한글 타자기의 등장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처리 도구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라는 근본적 변화를 추동했다. 또한 타자기를 통해 규격화된 글자 모양과 문서 형식은 이전과는 다른 문자 감각과 미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한글 타자기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자판 배열의 문제를 넘어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요구와 한글의 심미성 및 전통적 문화 감수성이 상호 길항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터다. 요컨대 한글 기계화의 역사는 새로운 기술을 매개로 한 문자와 언어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인식과 관행의 혁신을 초래한 셈이다. 따라서 저자에게 있어서 한글 타자기는 단순한 문자 입력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감각과 경험, 사회적 소통 방식의 변화를 집약하는 물적 증거이자 매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글과 타자기』는 ‘한글, 타자기, 공병우’라는 세 축을 균형감 있게 조망하면서 언어와 문자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인식과 제도적 실천이 첨예하

게 갈등하고 또한 상호 타협해 가는 복합적 역학을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특히 한글 타자기 개발을 주도했던 공병우의 삶에 주목함으로써 한글 기계화를 추동한 개인적 차원의 열정과 집념 그리고 그것이 사회구조적 조건과 만나며 빚어내는 복합적 양상을 생생히 그려 내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공병우 타자기의 글꼴이 이후 PC 시대 탈네모꼴 글꼴 개발과 저변 확대로 이어지는 의외의 귀결을 통해 기술과 문화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낳는 역사의 우연성과 아이러니를 짚어내기도 한다.

『한글과 타자기』는 공병우라는 인물의 파란만장한 생애사를 꼼꼼히 좇아가면서도 그것을 당대 한국 사회의 근대화 및 문자 생활의 변화라는 보다 넓은 역사적 좌표 속에 정위(定位)시키고 있다. 요컨대 김태호의 작업은 ‘한글’과 ‘타자기’라는 두 축을 균형감 있게 조명하면서 특정 기술의 사회문화적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역동적 과정을 입체적으로 그려 내고 있는 셈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으되 이제는 사라져 버린 유물로 취급되는 타자기의 면모를 오늘날의 맥락에서 소환해 낸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했던 인간 행위자의 고투와 내적 풍경까지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흥미진진한 문화사이자 인물사로서 다대한 의의를 가진다. 요컨대 김태호는 한글 타자기라는 사물에 깃든 물질성에 천착하되 그것을 둘러싼 인간 행위자들의 욕망과 경합 그리고 문자 생활을 규정하는 거시적 조건의 작용까지를 아우르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서술을 통해 한글 기계화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 내고 있는 것이다.

한글 타자기의 개발과 보급, 사장(死藏)의 역사는 기술과 문화, 개인과 사회가 뒤얽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한글과 타자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술사를 반추하는 작업을 넘어서 우리가 향유하는 현재의 문자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성찰하게 하는 기념비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을 터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문자 문화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노력과 선택,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며 형성된 역사적 과정의 결과임을 일깨우고 있다.

동시에 이 저작은 근현대 한국의 문자생활사를 매체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도 학술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타자기라는 근대적 문자 테크놀로지의 도입과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20세기 한국의 언어문화 및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더듬어 보게 한다. 아울러 그 이면에서 문자와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권력, 제도의 작동 방식을 꼼꼼히 해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연구 및 미디어론 분야에 신선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김태호의 저작은 ‘한글’이라는 민족 문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집합적 기억과 상상력이 ‘타자기’라는 근대적 기술과 만나 전개된 역동적 과정을 치밀하게 탐구한 성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작업은 오늘날의 언어적·문화적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복원하고 성찰하는 작업이 지니는 의미를 환기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매체가 등장하며 변화를 거듭하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간, 사회가 만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역사적 역동성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던져 준다는 점에서 김태호의 『한글과 타자기』는 깊이 음미할 만한 저작이 아닐 수 없다.

자크 데리다는 『종이 기계』(*Paper Machine*)를 통해 ‘종이’라는 물질이 지식의 생산, 유통, 권력 효과를 구성하는 근본적 조건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매개로 사유와 존재 양식 자체를 규정해 온 문자 문화의 고고학을 수행하고 기록 테크놀로지의 정치성에 대해 사유한 바 있다.³ 이 점에서 『한글과 타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한글 타자기’라는 종이에 관한 사물 즉 기계를 통해 한글 문화의 변동을 꼼꼼히 추적해 가는 작업은 ‘타자기’라는 물질성/미디어에 주목함으로써 그것이 담지한 문화적·제도적·이데올로기적 함의를 규명하고 있다. 이는 한글 타자기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글 및

3 Jacques Derrida (2005), trans. by Rachel Bowlby, *Paper Machin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언어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교차하는 장으로 조명한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문자 문화의 고고학을 수행하는 작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김태호의 『한글과 타자기』는 타자기 도입을 전후한 한국 문자생활사의 면모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저작인 동시에 언어·문자·매체에 관한 인문학적 사유의 지평을 확장한 문제작이다. 문자 테크놀로지에 체화된 근대적 욕망의 자장과 그것이 문화적 실천으로 전유되는 미시적 과정을 치밀하게 해부하는 이 저작은 역사 연구와 문화 비평의 모범이 될 만하다. 아울러 ‘타자기’에서 ‘키보드’로 이어지는 문자 문화의 테크놀로지적 조건을 사유하게 하는 문제의식은 매체철학을 근간으로 새로운 지성사 서술을 모색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중요한 참조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키틀러, 프리드리히(2019), 유현주·김남시 역, 『축음기, 영화, 타자기』, 문학과지성사.
 Derrida, Jacques (2005), trans. by Rachel Bowlby, *Paper Machin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